

#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 부처님 부산 자비선원



부산 자비선원에 오늘도 끊임없는 불자들 긴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바세계 중생들의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칠여래부처님께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불자들의 행렬이다. 도대체 자비선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비선원 주지 학봉당 진성스님은 남들이 겪지 못한 일들을 수행으로써 이겨내면서 마침내는 칠여래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진성스님은 40여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능엄주,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경전공부와 참선을 해왔다. 끊임없는 수행중에 진성스님은 희유한 일을 겪게 된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중 홀연히 비공사공간 중에 비람과 구름을 가르듯이 가사장삼을 휘날리며 주장자를 든 큰노승님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노승님은 한손에는 주장자, 한손에는 큰보자기를 들고 계셨고 그 보자기를 소승에게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 아마 만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라며 보자기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승이 큰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

## “어째서 이런 일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비의 가피체험

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황홀한 광채로 인해 순간 눈이 부셨고 고개를 들고 노승님을 바라보니 그 노승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바로 참선에서 깨어났는데 거 참! 희유한 일을 겪



돌을 들면서 소원을 비는 불자들



대중들에게 설법 중인 진성 큰스님

는 구나 하며 스님은 평상시 정진 생활을 할 뿐이었다.

진성스님은 어느날 청도 운문사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대중스님 한분과 운문사로 가던 중 운문사계곡 입구에서 물이 너무 맑아 잠시 차에서 내렸다. 이때 진성스님은 무언가 발견했다. 그것은 다편아닌 아주 불품없는 못생기고 단단한 돌이었다. 이것을 진성스님은 꼭 차에 싣고 가고 싶어 대중스님께 부탁을 하였다. 대중스님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쩔수 없이 차에 싣고 오던 중 이 돌을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황등 석재공장에 맞춰 달라고 속가에 부탁을 하고 자비선원으로 돌아왔다. 속가에서 돌을 잘 만졌는지 석재공장에서 연락이 왔다.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중스님께 물기에 “네모든 세모든 타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알아서 다듬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한달이 지나 택배가 와서 종무원에게 물어보라 하니 조그마한 10kg정도 되는 둥근 돌이었다. 석재공장에서 보낸 돌이었다. 대중스님은 이 돌을 종무원에게 시켜 신중단에 올리라고 부탁을 했다. 다음날 대중스님이 새벽에 다계물을 올리려고 하자 신중단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아 한쪽 옆으로 옮기려 하자 이게 웬일인가? 돌이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어제는 10kg정도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돌이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진성주지스님을 급히 찾았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그래?” 하시면서 진성스님 역시 들려고 하자 품작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나?”고 놀라시며 진성스님은 잠시 좌정을 하였다. 그리

고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아마 이 돌이 법상치 않은 돌인가 보다”라고 하며 여러모로 실험을 해보셨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면서 3일이 지났다. 진성스님은 이 희유한 일을 파악하고자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아마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후 진성스님은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았다. 그날 이후 스님께서 석재공장에 전화를 하시어 연꽃으로 된 받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똑같은 돌을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말은 들은 대중스님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큰스님 왜 돌을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쭙니 스님께서 하

시는 말씀이 원래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분만 오신게 아니고 다섯부처님이 오셨단다. 첫째는 다보여래부처님, 두번째는 묘색신여래부처님, 세번째는

##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칠여래 부처님이 들려지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광박신여래부처님, 네 번째는 이포외여래부처님, 다섯 번째는 감로왕여래부처님이라 하시며 이것을 오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달 후 석재공장에서 다 완성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대중스님은 진성스님을 모시고 황등 석재 공장으로 갔다. 이때 진성스님은 갑작스럽게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신비의 돌을 맞이 하였다. 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석공이 건네준 돌에 넘죽 큰 절을 올리시면서 “아~이고 부처님 이 제자 진성이 부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큰절을 올리시는 것이었다. 스님께서 “부처님이시여 이 진성사문이 부산 자비선원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합장을 하니 갑작스럽게 돌이 들려지지 않고 끔찍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석공이 “이럴수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스님께서 석공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전까지는 당신이 돌에 조각과 작업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돌은 부처님께서 화현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석공에게 “당신도 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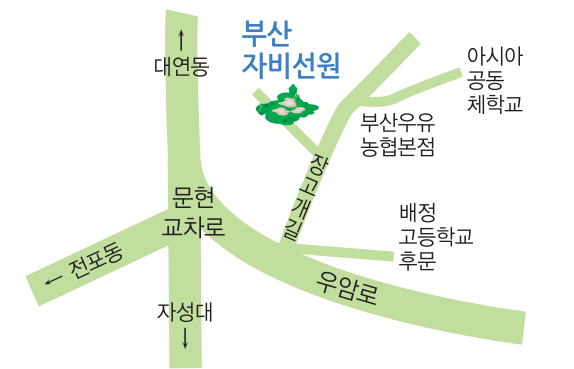
한 NGO회장으로 캄보디아 난민의료 봉사활동

비의 돌을 한번 들어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석공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두손으로 신비의 돌을 들어보니 끔찍도 하지 않았다. 그 석공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조금전까지도 공 굴리듯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스님께 여쭙니 “그 돌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과거 부처님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이 화현을 하셨다.”

이 부처님은 제일먼저 다보여래부처님이라고 명하노니 다보여래 부처님이라고 소중히 모시라고 대중스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두 번째 부처님은 이미 오셔서 자비선원에 계시고, 황등석재공장에서 오여래부처님을 차에 싣고 와서 법당에 모셔놓고 예불과 정근 공양을 매일 올리였다. 오여래부처님은 우리가 천도제할 때 관음시사에서 청양성호에 나오시는 오여래부처님으로써 영가들에게 탐 진 지 삼독심을 없애고 신구의 삼업을 밝혀 지은죄업을 사하고 공덕을 쌓아 왕생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부처님들이시다.

더욱 진성스님이 열심히 정진하던 중, 두분의 부처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어 마침내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발돋움했다.이후 진성스님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분만 예불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부처님께 예불과 정근을 계속해오셨다.

진성스님은 “이제 답답하고 억울하고 암담했던 일들이 붉은 녹두 해결될 것입니다. 일곱 부처님을 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불자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칠여래 부처님의 본심이 그러합니다. 그러하오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가피가 벌어집니다. 큰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극히 기도하고 칠여래 부처님께 여쭙보십시오” 정성스런 기도를 통해서 비로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이렇듯 칠여래부처님이 부산 자비선원에 나타신 이유는 스님의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이다.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발돋움한 자비선원! 억울하고 암담한 일을 겪는 이들에게 소중한 귀의처가 되고 있다.



NAVER 부산자비선원 검색  
문의 : 051)633-8445~7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장교로 93번길 41 (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유유농협 본점 앞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칠여래부처님은 근거에 따라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맞는 부처님을 찾아 예경하고 소원을 빌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 다보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입시준비, 각종 시험, 고시응시생 및 재판계류 해결을 원하는 불자님
- 보승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천도재 후, 재시·보시·법시를 하면 효과극대화, 행복과 재판계류 해결을 원하는 불자님
- 묘색신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직장승진, 취업 또는 결혼인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 득남을 원하는 불자님
- 광박신여래부처님 기도영험**  
탐·진·치 삼독의 고통은 물론 고가 풀리어 특히 부동산, 전월세 등에 효험
- 이포외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암환자, 공황장애, 우울증환자, 어린이이자폐증환자, 병의, 특히 원인을 몰라 병에 시달리는 분
- 아미타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이 48가지 소원을 들어주며 영가 극락왕생 발원하시는 분
- 감로왕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사업이 번창하고 큰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건설업, 제조업, 사회사업, 사회복지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

## 가피 체험사례

### 빛데미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다

지난해 선박 사업을 하던 저에게 20억이라는 적자가 생겨 엄청난 시련이 닥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 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도반이 진성큰스님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버랑 끝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비선원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진성 큰스님께서 대뜸 감로왕여래부처님 기도해보라고 하시길래, 20억을 받아 적자를 면하게 해달라고 성심을 다해 기도를 드리며 감로왕여래부처님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100일 기도기간 끝날 때쯤 일본에서 선박업자들이 들어오더니, 하루에 연거푸 3건이나 낙찰되어 하루에 비행기를 3번이나 타야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부처님께 삼배하고 일본에 들어가라는 큰스님의 말씀에 잠시 절에 들러 부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되면 3%를 부처님전에 올리겠다고요. 그랬더니 다음 날 낙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로왕여래부처님 감사한 마음으로 3%를 올리고 왔습니다. 저는 2014년도 큰 공이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간절곳에 불사를 할 것입니다. 요즈음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납니다. 한국에 들리면 이제부터는 큰스님 꼭

찾아뵙고 입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김기주 (대일에스엔피 대표)

### 병의치료 후 큰스님결에 머물다

저에게는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어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병은 낫지 않고, 어떤 특효약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침이 흐르는가하면, 밤에는 귀신에 시달리는 일 때문에 잠을 자기가 무서워 정신건강과에서 감금당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아픈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달 BTN 불교방송 광고를 보고, 부산 자비선원 진성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포외여래부처님께 1주일, 21일, 49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그랬더니 병이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침을 흘리지 않고, 귀신도 안보이고, 황청도 안 들리니 잠을 너무나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제겐 큰 축복입니다. 꿈인지 생인지, 너무 감사할 따름이며 병이 완쾌된 보답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비선원에서 진성큰스님의 상좌가 되어 불법에 매진하려 합니다.

2014년 8월 최영길 (부산 00동)